

지역 소식통

고창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고창군이 건강한 아이를 갖길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4월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횟수와 금액을 확대한다.

확대 지원될 시술 종류는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늘린다.

시술 지원금액은 만44세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기는 최대 30만원이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기는 최대 20만원으로 여성 연령별로 시술금액을 상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지사보험,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 시행

저소득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문제를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관내 독거노인과 민관공동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구성된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무료급식 이용이 어려워 결식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되었고 2020년에 시작되어 3년차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재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특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

부안군, 군민 인재양성 · 민간주도 자립성장 기틀 마련 위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023년까지 청년·귀농귀촌인 등 군민 인재양성과 민간주도 자립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체형성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민들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지난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하면서 향후 세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부안군 안심농산업 활성화를 비전으로 내세운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안심하고 힐링하며 머물 수 있는 부안군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부안산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3대 전략, 4대 중점과제, 10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기 구축된 '신활력공작소'는

지역공동체 거점 교류공간으로 활용되어 놀이·연대·배움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며, '안심농산업 공유유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관내 농산물과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안군은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지역대표 안심 농산물 상품화, 현장 전문가 역량개발, 부안특화형 밀키트 개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 및 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연대와 상생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체계를 전면 전환했다.

코로나 검사체계 전면 전환

정읍시, 고위험군 우선 PCR 검사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

정읍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체계를 전면 전환했다.

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무증상·경증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우선 검사 대상자인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나온 자 등이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KRAT)를 받고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가 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동봉된 면봉으로 콧속 비강을 10여 차례 훑어 얻은 검체(뭍물)와 시약의 결합 반응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 검사보다 낮지만 15분 정도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24시간 유효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진단키트는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친환경 열 차단제' 도포

정읍시, 햇빛 반사해 내부 온도 상승 억제... 최대 5도까지 하강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초경량 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해 친환경 열 차단제를 축사 지붕에 도포함으로써 축사 지붕의 직사광선 노출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사업이다.

혹서기 축사 내 열기 축적 감소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를 예방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사업에는 총 1억8천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폭염에 취약한 재래축사(시설로 양돈, 가금(닭, 오리) 농가가 대상이다.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나 무허가 축사 또는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

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받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주택공급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나서

고창군이 올해 총사업비 37억여원을 들여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분야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전·월세 가구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수리비도 일부 내준다. 지난해 1990여 가구에 2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3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청년주거급여 사업도 눈길을 끈

다.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로 살 때 청년의 주거비를 내주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서 40%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전라북도 특화사업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올해부터 복권기



금 등 국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경영 위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앞장'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장사의 신 만들기 사업'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융자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이다.

'우리 동네 장사의 신 만들기 사업'은 골목상권 경영난 해소를 위해 컨설

팅 전문 기관을 활용해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상권회복 프로젝트다.

면접 심사를 통해 장사의 전략 교육과 사업전략 1:1 코칭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 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천만 원까지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는 대출금리의 연 2.0% 초과분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